



UA: 4/18 INDEX: ASA 16/7698/2018 MYANMAR



## 와 론과 초 소 우 WA LONE & KYAW SOE OO

로힝야 취재 기자 2명, 징역 14년형 위기에 처하다

### DATE

2018.01.10

### TO

#### 미얀마 법무부장관

#### Union Attorney General

U Tun Tun Oo

Union Attorney General Office No. 25

Nay Pyi Taw,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ax: + 95 (0) 067 404106

Email: ago.h.o@mptmail.net.mm

Salutation: Dear Attorney General

#### 미얀마 내무부장관

#### Minister of Home Affairs

Lt. Gen. Kyaw Swe

Minister of Home Affairs

Office No. 10, ay Pyi Taw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ax: +95 67 412 439

Email: mohamyanmar@gmail.com

Salutation: Dear Minister

####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 회장

#### Chairman, 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 Commission

U Win Mra

27 Pyay Road, Hlaing Township, Yangon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ax: + 95 1 659 668

Email: chmyanmarnhrc@gmail.com

#### 주한 미얀마 대사

#### Ambassador of the Embassy of Myanmar in Seoul

Thura Thet Oo MAUNG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8길 12 (04418)

팩스: (02)790-3817

Email: myanmar@kotis.net

Salutation: Dear Ambassador

2018년 2월 21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단원편지를 작성하세요.

기자 2명이 이들의 평화적인 언론 활동과 관련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은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혐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인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는 2018년 1월 10일 수도 양곤의 한 법원에서 미얀마의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다.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이 법은 “국가의 안전 또는 이익에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문서 또는 정보를 입수, 기록하거나 전달할 경우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사람은 미얀마 라킨 주에서 소수민족 로힝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군의 잔혹행위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2017년 12월 12일, 양곤 북부에서 경찰 관계자에게 저녁식사 초대장을 받은 뒤 구금되었다. 두 사람은 경찰로부터 문서를 전달받음과 거의 동시에 체포되었는데, 그들은 이 경찰과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 미얀마 경찰은 두 사람의 체포 사유에 대해 “해외 언론사에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라킨 주와 보안군에 관련된 정부의 중요 기밀 문서를 소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국영 언론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얀마 경찰관 2명도 함께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이 2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체포된 이후 2주간 독방에 구금되었고, 그동안 변호인이나 가족 등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2018년 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두 사람은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와 론과 초 소 우를 체포한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 역시 라킨 주의 상황을 독립적으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얀마의 노골적인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보복의 우려 없이 평화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자들의 역량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영어, 버마어 및 모국어로 다음과 같이 미얀마 정부에 촉구해주세요.**

- 와 론과 초 소 우는 자신의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혐의를 취소해야 한다.
- 1923년 정보기밀법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범죄화하거나 임의적으로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을 모두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국제인권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UA: 4/18 INDEX: ASA 16/7698/2018 MYANMAR



## 와 론과 초 소 우 WA LONE & KYAW SOE OO

로HING야 취재 기자 2명, 징역 14년형 위기에 처하다

### DATE

2018.01.10

### TO

#### 미얀마 법무부장관

#### Union Attorney General

U Tun Tun Oo

Union Attorney General Office No. 25

Nay Pyi Taw,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ax: + 95 (0) 067 404106

Email: ago.h.o@mptmail.net.mm

Salutation: **Dear Attorney General**

#### 미얀마 내무부장관

#### Minister of Home Affairs

Lt. Gen. Kyaw Swe

Minister of Home Affairs

Office No. 10, ay Pyi Taw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ax: +95 67 412 439

Email: mohamyanmar@gmail.com

Salutation: **Dear Minister**

####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 회장

#### Chairman, 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 Commission

U Win Mra

27 Pyay Road, Hlaing Township, Yangon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ax: + 95 1 659 668

Email: chmyanmarnhrc@gmail.com

#### 주한 미얀마 대사

#### Ambassador of the Embassy of Myanmar in Seoul

Thura Thet Oo MAUNG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8길 12 (04418)

팩스: (02)790-3817

Email: myanmar@kotis.net

Salutation : **Dear Ambassador**

2018년 2월 21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 배경 정보

미얀마에서는 최근 기자 및 언론인들이 취재 활동에 관련해 계속해서 규제를 당하면서, 자유로운 언론의 입지가 점차 악화되는 걱정스러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독립 언론사는 갈수록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특히 로HING야 상황과 같이 민감한 내용을 보도할 경우 협박과 괴롭힘은 물론 체포와 구금, 심지어는 투옥까지 당할 수 있다. 2017년 4월, 아이티 정부는 부부간간을 형사범죄로 인정하는 등 성폭력에 더욱 강경 대응하는 조항을 추가한 포괄적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표현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권리로, “국경에 상관없이 모든 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생각을 추구하고, 주고 받을 자유”를 포함한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 사유는 법에 따라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고, 국제인권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수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정부가 안보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나, 미얀마의 1923년 정부기밀법은 극도로 광범위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었으며, 국제법상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이 법은 공익적 이유로 기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